

## 『프랑켄슈타인』의 감정 어휘 및 표현에 대한 코퍼스 기반 연구

박 순 강

### [국문초록]

코퍼스 언어학은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에 주목, 컴퓨터 콘코던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양한 텍스트의 어휘적 특징을 분석해내는 연구방법이다. 최근 비문학적인 텍스트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문학작품의 분석에도 활용되고 있는 코퍼스 언어학은 방대한 전자텍스트를 통해 문학비평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특히 언어의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빈도수가 높은 어휘는 텍스트의 내용이나 구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퍼스 분석을 통해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의 다양한 어휘적 특징을 평가해보았다. 그 결과 부정적인 감정어휘들이 내러티브의 효과적인 감정통제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형용사 ‘비참한’에서부터 정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형용사들은 비극적 감정을 극적으로 재현하면서도 인물의 역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활용되어 보편적 감정반응을 유도한다. 시각적 의미를 강조한 지각동사의 높은 빈도수는 내러티브의 시각적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셸리는 시각적인 형상화를 강조하는 어휘로 추상적인 상황을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적용해서 이해하도록 이끈다. 코퍼스 분석은 이러한 서사적이고 문체적인 특징을 주관적 인식을 넘어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제어: 코퍼스 언어학, 감정어휘, 감정표현, 시각적 인식, 공감

## 1. 서론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 1818)은 다양한 감정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소설로 그중에서도 공포나 혐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부각되는 작품이다. 이는 고딕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고딕소설은 음울하거나 신비로운 분위기에서 발생하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유령의 등장, 또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공포심과 두려움을 극대화시킨다. 이때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 인지론적인 측면의 주의환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의 배경이나 사건들로 인해 야기되는 공포심이 정서적 반응, 즉 감정반응이 아니라 이를 통해 또 다른 인식론적인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딕소설을 사회비판적이거나 전복적인 성향이 내재된 장르로 간주하기도 하고 자기성찰적인(introspective) 효과를 강조한다거나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기반을 둔 심리학적 장르로 분석도 하고 사회적 억압이나 이념적인 갈등을 조장하거나 타파하기도 한다는 등 다양한 비평이 가능하게 된다.<sup>1)</sup>

『프랑켄슈타인』도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가 가능한 작품이고 수많은 비평을 양산했다. 그중에서도 윤리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의 비평이 두드러진데 주로 창조물을 향한 등장인물들의 감정변화에 주목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창조물의 괴물성(monstrosity)은 외형적인 이질성으로 재현되기 때문에 김미숙이나 지간테(Denise Gigante), 해치(James C. Hatch), 융겔(Scott J. Juengel) 등은 그의 외형적 흉측함이 극도의 공포감이나 반감을 자아내서 타인과 교감할 수 없는 비극적 존재로 각인됨에 주목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창조물의 추함이 당대 미학적 관점에서 수용될 수 없기에 사회적 상호작용, 즉 감정교류도 불가하다고 논한다.

이처럼 창조물의 추악한 외모는 내러티브에서 극한의 비극적인 감정을 고취시키고 극단적인 공포와 반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추함에 대한 철학적인 제고와 함께 시각이 지닌 사고(思考)의 힘도 강조한다. 특히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상반된 미적기준으로 강조되는 숭고미는 목도할 수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극한의 감

정을 경험하도록 해서 현실의 한계를 넘어선 진정한 성찰의 기회가 된다.<sup>2)</sup>

그런데 『프랑켄슈타인』에서 보이는 불안함이나 엄청난 폭력성은 단순히 고딕소설의 전통선상에 있는 극적장치라기보다는 감정이 지닌 사회적인 힘을 부각시키는 전략적인 수단이자 발로(發露)라고 볼 수 있다. 빅터와 창조물의 감정대립은 내러티브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창조물을 향한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일관된 부정적 감정은 창조물을 사회에서 배척시키는데 일조한다. 그리고 그의 외적 추함을 판단하는 타인의 시각적 인지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의미도 투영하며 보편적인 감정교류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프랑켄슈타인』속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오롯이 창조물의 추한 외모 때문에 생산되고 소비되며 이로 인해 타인과의 교감이 불가능하게 된 창조물이 결국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속한 안정된 세계를 위협하고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비극의 발단으로만 작용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공감이나 연민, 자비 같은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감정의 사회적 효용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서사적 장치인가?

어떤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총칭하는 감정은 신체반응이 수반되는 사고과정의 일부로, 인간에게 내재된 본능이다.<sup>3)</sup> 따라서 단순히 어떤 상황을 목격하고 나타나는 반사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상상하거나 상기할 때도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반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생리학과도 관련 있어서 감정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도 구별된다.<sup>4)</sup> 대부분의 감정은 선천적으로 습득하거나 개인의 경험을 반영해 형성되고(Ekman 216) 행동뿐 아니라 행동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이나 동물 모두 감정이 드러나는 행동, 즉 얼굴표정이나 몸짓만으로도 교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언어로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거나 표현할 수 있고, 의지에 따라서 감정을 감추거나 거짓 감정을 표현한다. 특히 감정은 도덕적 행동을 하려는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Prinz 520),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이나 그 감정에 대한 평가만으로 개인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도 가능하다.

『프랑켄슈타인』에서 창조물이 표출하는 감정은 플러치(Robert Plutchik)이 구별한 6개의 기본적인 감정인 ‘분노’(anger), ‘역겨움’(disgust), ‘행복함’(happiness), ‘슬

픔'(sadness), '무서움'(fear) 그리고 '놀람'(surprise)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처음부터 다른 이들과 같은 존재인줄 알았던 창조물은 자신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에 당황해하고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고 혐오하게 된다(116-17). 이후 그는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며 분노하고 좌절하며 악행을 저지른다. 이는 비단 창조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빅터 프랑켄슈타인도 마찬가지로 처음 창조할 때 느꼈던 설렘과 흥분은 완성된 창조물의 흉물스러운 모습을 본 후 사라지고 혐오감과 공포로 변하여 결국 비극을 자초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프랑켄슈타인』에서 나타나는 감정어휘 및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코퍼스(Corpus)를 활용해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인 코퍼스 언어학은 작가가 선택한 언어를 정리하고 분류하여 작품에 내재된 특징을 알아낼 수 있다(Lee 814). 특히 코퍼스 분석 시 빈도수와 중요어휘는 비례하기에 텍스트의 어휘적 특징, 그 중에서도 감성어휘에 주목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sup>5)</sup> 물론 빈도수가 높다고 해서 텍스트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고 볼 수 없는데, 가령 등위접속사나 관사의 빈도가 높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어휘라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코퍼스 활용한 다양한 텍스트 분석은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었지만, 하명정이 언급한 것처럼 문학 텍스트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비교적 드문 것도 사실이다(441). 그러나 코퍼스 언어학은 텍스트의 문체적인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학과 접목될 때 텍스트의 재해석이나 기존의 비평을 보완할 수 있고, 작가의 고유한 언어사용을 주제와 연관지어 분석할 수도 있다. 그 예로 피셔 스타크(Bettina Fisher-Starcke)는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나 구혼과 결혼, 사랑 그리고 개인의 감정 같은 심리적인 면이 강조되지만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 1813)에서는 다른 작품보다도 가족이나 가족의 관계에 대한 어휘들이 특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특히 '자매'(sister)는 감정이나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들과 빈번하게 쓰임으로서 유사한 다른 가족을 지칭하는 단어와 구별된다고 지적한다. 세군도(Pablo Ruano San Segundo)도 디킨스(Charles

Dickens)가 특정한 인물에게 고유한 어휘적 특징을 부여해서 작중인물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음을 코퍼스를 활용해서 분석하기도 했다. 스텝스(Michael Stubbs)의 경우, 콘래드(Joseph Conrad)의 『어둠의 심연』(*The Heart of Darkness*, 1902)에서 불확실성이나 모호함을 나타내는 ‘희미한’(vague, indistinct)같은 형용사나 ‘어떤 것’(something)같은 부정대명사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로 이러한 특정한 어휘나 어구의 반복이 주제와 연관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좀 더 광범위한 접근으로 존스(Stephanie Jones)는 1800년도부터 1900년까지 고딕소설을 임의로 선택하여 고딕소설의 코퍼스를 구축하고 키워드 분석을 통해 고딕소설의 어휘적 특징을 분석하기도 했다.<sup>6)</sup>

따라서 본 연구는 코퍼스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스텝스가 강조한 것처럼 “반복되는 어구”(recurrent phraseology, 11)에 주목해서 『프랑켄슈타인』 속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단순한 비극의 단초가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독자가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정교류의 중요성과 사회적 효용을 강조하는 서사적 장치임을 연구자의 직관이 아닌 객관적인 결과로 확인할 것이다. 또한 추함을 평가하는 시각적 판단이 무조건적인 공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반응 시 선행되는 시각의 힘을 강조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산된 어휘로 재현되고 있음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코퍼스 구축 방법

본 연구는 코퍼스를 활용해 『프랑켄슈타인』에서 특징적인 어휘를 분석하기 위해서 유니텍스(UNITEX) 프로그램과 워드스미스 툴(WORDSMITH tool 7.0)을 함께 사용했다. 대체로 코퍼스 구축 시 워드스미스 툴을 이용하지만, 워드스미스는 초기 구입비용이 들고 또 활용하기에 다소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유니텍스 프로그램은 프랑스 국립 파리 에스트 마른 라 발레대학(Université Paris-Est Marne-la-Vallée)에서 구

축한 어휘 분석 도구로 주로 다국어 사전구축을 위해 활용된다. 이는 무료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일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언어학적 특징을 구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또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국어 사전도 내장되어 있어서 개별 언어가 지닌 문장의 문법적 특징이나 형태소를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코퍼스 분석에 필요한 빈도수나 용어색인(concordance)도 가능해서 자연어처리를 위한 기계학습에 유용하다. 그러나 문학작품의 고유한 문체적 특징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므로 본 연구는 유니텍스의 워드 리스트와 형태소 분석을 참고하되, 워드스미스 툴의 키워드 추출기능도 함께 활용하였다.

내러티브에서 두드러지는 어휘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조코퍼스는 비슷한 시기의 고딕소설 다섯 편, 『오트란토 성』(*The Castle of Otranto*, 1764), 『우돌포의 비밀』(*The Mysteries of Udolpho*, 1794), 『수도사』(*The Monk: A Romance*, 1796), 『이탈리아인』(*The Italian*, 1797), 『방랑자 멜모스』(*Melmoth the Wanderer*, 1820)를 선택하였다. 이는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함인데, 키워드란 텍스트에서 보이는 빈도수에 따라 상대성을 고려해 유의미하다고 인지되는 “스타일마커”(style marker)로 하명정의 지적처럼 문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요소이다(441).<sup>7)</sup> 다시 말해 “스타일 마커”는 다른 텍스트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문체적 특징으로 문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Enkvist et al. 34-35). 따라서 참조코퍼스를 통해 『프랑켄슈타인』에서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어휘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이에 분석할 텍스트들은 모두 프로젝트 구텐베르크(<http://www.gutenberg.org>)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였고, 수월한 용어색인을 위하여 타깃코퍼사인 『프랑켄슈타인』 텍스트파일을 출판본과 동일하게 1831년 판본으로 통일하였다. 이후 『프랑켄슈타인』에서 빈출어휘목록을 추출하고, 다시 참조코퍼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순의 키워드 목록을 획득했다. 그리고 이 빈출어휘목록과 키워드의 용례를 통해 내러티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 3. 어휘 분석 결과

『프랑켄슈타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인물들의 감정선이 부각된다. 누이인 새빌 부인(Mrs. Saville)에게 편지를 보내는 윌튼(Robert Walton) 선장은 반복해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줄 친구가 없음을 한탄하고(19), 처음 빅터를 만나고 그에게 애정, 존경, 연민, 슬픔을 느끼며 그의 이야기를 전한다(28). 빅터도 고향을 떠나 체계적인 과학 지식을 습득한 뒤 생명의 원리를 발견하고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힌다(53). 그런 그가 손수 창조물을 만들고 이를 처음 보고 느끼는 감정은 그 흥측한 외모로 인한 극도의 공포와 혐오였고(58-60), 창조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겪게 되자 격렬한 분노와 회한에 고통 받으며 복수심에 휩싸인다(93-96). 창조물 역시 빅터에게 버림받고 그토록 심적으로 의지했던 드 라세이(De lacey) 가족이 자신을 보고 표출한 극도의 반감에 증오심과 복수심을 느끼며 절망한다(140-41). 부모나 다름없는 빅터의 부정적인 반응에 좌절한 창조물은 끝까지 자신을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여성 창조물까지 훼손시킨 그에게 크나큰 분노를 느끼며 끔찍한 복수를 다짐한다(172-73). 결국 이들과 소통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거부당한 창조물은 사회에서 배척되고 이후 그의 복수심은 내러티브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이는 등장인물들을 비롯한 독자들에게도 그를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서 이후 그의 잔인한 행동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주변사회를 동요시키는 것을 묵인하지 않고 이를 저지하는데 심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감정이 표출되는 내러티브에서 빈출어휘목록과 키워드 리스트 결과는 다소 상이하다. 우선 텍스트의 어휘의 사용빈도에 따라 추출한 빈출어휘목록인 <표 1>을 보면 상위 100개의 목록에 감정어휘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내러티브의 다양한 감정어휘들은 빈출어휘에서는 상위목록은 아닌데, 예를 들어 ‘분노’(rage)는 전체 내러티브에서 25회(0.015%), ‘복수’(revenge)는 24회(0.014%)만 나타날 뿐이기에 단순히 빈출어휘만으로 내러티브에서 감정어휘가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상위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어휘는 3인칭 대명사거나 내러티브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전치사로 표면상 『프랑켄슈타인』이 다수의 1인칭 서술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므로 1인칭 대명사의 빈도는 당연히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빈출어휘목록만으로 내러티브의 특징을 정리하기는 부족하다.

〈표 1〉 『프랑켄슈타인』의 빈출어휘목록(워드 리스트)

빈출 어휘	빈도수 (%)	빈출 어휘	빈도수 (%)	빈출 어휘	빈도수 (%)	빈출 어휘	빈도수 (%)
THE	4,195 (5.57%)	IN	1,129 (1.50%)	HE	608 (0.81%)	FOR	498 (0.66%)
AND	2,976 (3.95%)	WAS	1,021 (1.36%)	YOU	574 (0.76%)	BY	460 (0.61%)
I	2,850 (3.78%)	THAT	1,018 (1.35%)	WHICH	558 (0.74%)	ON	460 (0.61%)
OF	2,642 (3.51%)	ME	867 (1.15%)	IT	547 (0.73%)	THIS	402 (0.53%)
TO	2,094 (2.78%)	BUT	687 (0.91%)	HIS	535 (0.71%)	FROM	385 (0.51%)
MY	1,776 (2.36%)	HAD	686 (0.91%)	AS	528 (0.70%)	HER	373 (0.50%)
A	1,391 (1.85%)	WITH	667 (0.89%)	NOT	510 (0.68%)	HAVE	365 (0.48%)

〈표 2〉 『프랑켄슈타인』의 키워드 목록

빈출 어휘	빈도 수	빈출 어휘	빈도 수	빈출 어휘	빈도 수	빈출 어휘	빈도 수
MY	1,776	ICE	43	WILLIAM	25	FIEND	35
ELIZABETH	92	UNTIL	52	SCIENCE	28	AGATHA	22
CLERVAL	59	MISERABLE	65	COTTAGERS	23	SPENT	25
JUSTINE	55	FRANKENSTEIN	27	SENSATIONS	32	MONTHS	39
FELIX	50	VICTOR	28	HENRY	26	FEELING-S	76

ALTHOUGH	53	SAFIE	25	MISERY	54	CREATURES	25
GENEVA	36	CREATURE	44	MONSTER	31	INGOLSTADT	16

<표 2>의 키워드 리스트의 결과도 빈출어휘목록과 유사하게 다수의 서술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발화하거나 편지나 일기 같은 간접적 수단으로 내러티브를 이끌기에 1인칭 대명사와 인칭대명사나 고유명사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또한 빅터가 창조한 창조물을 지칭하는 어휘인 ‘창조물’(creature)<sup>8)</sup>, ‘괴물’(monster), ‘악마’(fiend)도 상위 순위지만 이는 창조물을 지칭하는 어휘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뿐만 아니라 이 키워드 중 상위 160개의 목록에서 감정어휘는 ‘비참한’(miserable)을 비롯해서 16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어휘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빈도수보다도 그 용례 때문이다.

### 3.1 감정어휘의 전략적 활용

우선 전체 키워드를 용례에 따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프랑켄슈타인』의 특징별 키워드 구분 목록

특징	어휘 추출 결과 (빈도수)
감정어휘	miserable(65), misery(54), benevolent(14), happy(46), dear(72), dearest(18), abhorred(12), happiness(49), gentle(35), beloved(26), wretchedness(14), wonderful(17), kindness(27), poor(45), filthy(5), ardour(13)
‘감정’을 지칭하는 어휘	sensations(32), feelings(76), sympathy(19),
‘창조’의 파생어 및 결과물, 연구(작업) 관련 어휘	creature(s)(69), creator(20), creation(19), beings(22), monster(31), fiend(35), daemon(18), wretch(25) <sup>9)</sup> , deformity(8), labour(s)(32), undertaking(13), study(19), occupations(12), task(19), work(33), studies(12)
‘인간관계’와 관련된 어휘	friends(54), friend(71), fellow(30)

‘해(害)’와 관련된 부정적 행위를 지칭하는 어휘	murderer(27), revenge(24)
정도의 어휘	greatest(27), quickly(26), hardly(27), continually(18), speedily(7), deeply(20), immediately(7), too(30)
양보의 어휘	although(53)

이를 보면 내러티브의 특성상 창조자인 빅터와 창조물의 갈등과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이 부각되기에 관련어휘들의 빈도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월튼 선장이 내러티브 초반부터 감정을 공유할 대상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거나 창조물이 인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들 사회에 편입하려다 좌절하고 복수를 자행하는 것으로도 보듯이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같은 어휘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중에서 특히 감정어휘들은 등장인물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재현되거나 특정한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의 결과를 바탕으로 키워드의 용례를 살펴볼 때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감정어휘는 ‘비참한’(miserable)으로 과생형인 ‘고통, 비참’(misery)과 함께 119회 등장한다. 무엇보다도 빅터와 창조물은 서로 유사한 감정표현 패턴을 보이는데 주로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타인에게 호소할 때 사용되는 이 어휘는 내러티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조물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빅터는 그를 창조한 순간부터 끊임없이 비참하다고 되뇌는다. 물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유스틴이나 드 라세이 가족들 역시 비참하게 묘사되지만 유독 빅터와 창조물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계속해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나 운명을 토로하며 타인에게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하거나 그 비극적 상황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때 빅터와 창조물이 구사하는 어휘나 표현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재현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1)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 내 존재를 안다면, 그들도 당신처럼 무장을 하고 나를 없애려하겠지. 그러나 나도 나를 혐오하는 그들을 중요할지 않을 수 있던 말인가? 원수들과는 잘 지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참하기에 그들도 내 비참함을 같이 느껴야해.** 그런데 너는 그 힘으로 내게 보상을 해주고 나와 네 가족

뿐 아니라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이 분노의 소용돌이에 삼켜져버릴 점점 커져갈 악행에서 구해낼 수 있어. 동정심을 발휘해봐. 나를 경멸하지 말고. (강 조체는 필자의 강조임)

If the multitude of mankind knew of my existence, they would do as you do, and arm themselves for my destruction. Shall I not then hate them who abhor me? I will keep no terms with my enemies. *I am miserable, and they shall share my wretchedness.* Yet it is in your power to recompense me, and deliver them from an evil which it only remains for you to make so great, that not only you and your family, but thousands of others, shall be swallowed up in the whirlwinds of its rage. Let your compassion be moved, and do not disdain me. (103)

(2) 나는 **불쌍하고, 의지할 데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구별조차 할 수 없었지만, 온몸에서 고통이 느껴져서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

*I was a poor, helpless, miserable wretch;* I knew, and could distinguish, nothing; but feeling pain invade me on all sides, I sat down and wept. (105-6)

(3) 나는 **외롭고 비참하다.** 인간은 나와 어울려려하지 않지. 그렇지만 나처럼 기형에 끔찍한 존재라면 나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짝은 나와 똑같은 종족으로 똑같은 결함을 지녀야해. 그런 존재를 만들어다오.

*I am alone and miserable;* man will not associate with me; but one as deformed and horrible as myself would not deny herself to me. My companion must be of the same species and have the same defects. This being you must create. (144)

(4) 나는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몰랐지만 진심으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만일 그토록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비참하다면, 나처럼 불완전하고 외로운 존**

제가 불행한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I saw no cause for their unhappiness, but I was deeply affected by it. *If such lovely creatures were miserable, it was less strange that I, an imperfect and solitary being, should be wretched.* (113)

(1), (2), (3), (4)의 예문처럼 창조물의 경우 직접적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처지를 토로하며 자신을 이해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는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는 타인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이해받기를 갈구한다. 또한 드 라세이 가족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슬픔에 자신의 비참함을 비교하며 그들의 처지를 안쓰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인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감정을 공유하는 방식을 깨우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5) “감사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위안받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 . 그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태껏 박해받고 고통 받는 저라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무슨 나쁜 일이겠습니까?”

“I thank you, but all that you mention is nothing to me; on the whole earth there is no comfort which I am capable of receiving. . . . That is my least concern; *I am, by a course of strange events, become the most miserable of mortals.* Persecuted and tortured as I am and have been, can death be any evil to me?” (183)

(6) 그녀는 더 아워었고 나를 매료시켰던 그토록 활발하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도 온화한 모습이나 연민어린 부드러운 표정은 그녀를 **나처럼 혐오스럽고 비참한 이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짝으로 만들어 주었다.

She was thinner and had lost much of that heavenly vivacity that had before charmed me; but her gentleness and soft looks of compassion made her a more fit companion *for one blasted and miserable as I was*. (194)

(7) 악마는 내게서 미래의 행복에 대한 모든 희망을 빼앗아버렸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나만큼 비참하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끔찍한 사건은 인류역사상 유일한 것이었으니. . . 차례차례 내 친구들을 앗아갔다는 사실만 알고 있기를. 나는 쓸쓸히 남겨졌다.

A fiend had snatched from me every hope of future happiness; *no creature had ever been so miserable as I was*; so frightful an event is single in the history of man. . . Know that, one by one, my friends were snatched away; I was left desolate. (201)

반면 빅터는 (5), (6), (7)의 예문에서 보듯 창조물과는 달리 자신의 상황을 비교할 대상을 물색하고 상대적인 표현을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더 괴롭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바로 모든 사건의 발단이자 원흉이 그의 말대로 “내가 창조한 괴물, 내가 세상으로 내보내어 파멸을 이끈 비참한 악마”(the monster whom I had created, the miserable daemon whom I had sent abroad into the world for my destruction, 202)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내러티브 내에서 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 달라고 설블리 말할 수 없는 처지로, 창조물과는 달리 상대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타인의 감정에 호소하고 자신의 불행함을 강조한다.

be happy, but they will be harmless and free from the misery I now feel. (S) Oh! My creator, make me happy; let  
 both also wept and was unhappy, but hers also was the misery of innocence, which, like a cloud that passes ov  
 had formed me and sent me forth to this insupportable misery. (S) "The sun rose; I heard the voices of men and  
 point would be not only useless, but draw down treble misery on us all." (S) I trembled violently at his exord  
 ant as I then was, to your destruction and infallible misery. (S) Learn from me, if not by my precepts, at lea  
 of my life occurred—an omen, as it were, of my future misery. (S) Elizabeth had caught the scarlet fever; her  
 were to die with you; I cannot live in this world of misery." (S) Justine assumed an air of cheerfulness, whi  
 s which led, by insensible steps, to my after tale of misery, for when I would account to myself for the birt  
 s what I have endured. (S) I will confide this tale of misery and terror to you the day after our marriage sha  
 it is true, but uninterrupted by any sudden shock of misery. (S) If I returned, it was to be sacrificed or to  
 a idea of my suffering, away from her, the inroads of misery and grief. (S) It had been her care which provide  
 u of them he could not sum up the hours and months of misery which I endured wasting in impotent passions. (S)  
 t clinging love we have of life even in the excess of misery! (S) I constructed another sail with a part of my  
 s accustomed to see without sympathizing in sights of misery. (S) Her tone expressed her entire indifference;  
 al torment in bodily exercise. (S) But the overflowing misery I now felt, and the excess of agitation that I s  
 ough unhappy, he is not so utterly occupied by his own misery but that he interests himself deeply in the proj  
 st animal. (S) No guilt, no mischief, no malignity, no misery, can be found comparable to mine. (S) When I run  
 l that is worthy of love and admiration among men, to misery; I have pursued him even to that irremediable ru  
 . (S) Such a man has a double existence: he may suffer misery and be overwhelmed by disappointments, yet when  
 se they included a greater proportion of happiness or misery. (S) Urged by this view, I refused, and I did rig  
 lot it was in their hands to direct to happiness or misery, according as they fulfilled their duties toward  
 , "but to us the discovery we have made completes our misery. (S) No one would believe it at first; and even n  
 and tormentor, shall curse the sun that gazes on your misery. (S) Beware, for I am fearless and therefore powe  
 "(S) I was at first touched by the expressions of his misery; yet, when I called to mind what Frankenstein ha  
 reside over thee, to pursue the demon who caused this misery, until he or I shall perish in mortal conflict. (S)  
 ad her prey, and I should soon have sunk beneath this misery. (S) Once, after the poor animals that conveyed m  
 dream, I am sorry that I am still alive to feel this misery and horror." (S) "For that matter," replied the o  
 t remain. (S) Cursed, cursed be the fiend that brought misery on his grey hairs and doomed him to waste in v  
 S) Elizabeth, this struggle may occasion the poignant misery which you appear to feel." (S) "My dear father, r  
 a familiar to reason than to the imagination; but now misery has come home, and men appear to me as monsters

### 〈그림 1〉 UNITEX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misery의 용례

‘비참함’(misery)의 경우도 <그림 1>에서처럼 지시형용사나 관사를 제외하고 주로 감정의 정도를 강조하는 형용사와 함께 쓰인다. 이는 등장인물을 막론하고 현재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상대방의 처지를 어림짐작할 때에도 그 고통의 강도를 극대화해서 감정을 토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예로 창조물이 그토록 의지했던 드 라세이 가족에게서 처참히 내대당하고 “견딜 수 없는 비참함”(insupportable misery, 138)을 준 창조한 자에게 복수를 다짐한다거나 빅터가 탄생의 비밀을 알고 직접 생명체를 만들어내겠다는 야욕을 품었던 과거를 회상하며 “파멸과 확실한 비참함”(destruction and infallible misery, 54)으로 이끌 수 없으니 상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도 비참함의 정도는 강조되어 비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특히 그는 자신의 복받치는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하는데 창조물의 요구를 거절한 뒤, 자신의 과오와 앞으로 닥칠 끔찍한 비극을 예견하며 슬픔을 토로하다가 이내 다시 살 궁리를 하던 자신의 모습에 “우리의 감정이란 얼마나 잘 변하는지, 또 고통이 넘쳐나는데도 목숨에 애착을 갖다니 이 얼마나 기이한가?”(How mutable are our feelings, and how strange is that clinging love we have of life even in the excess of misery, 177)라며 자괴감을 표출할 때에도 심적 고통은 강조된다. 또한 엘리자베스의 죽음을 목격하고 창조물의

뒤를 쫓으며 “나는 넘쳐흐르는 고통과 지나친 불안감을 겪고 있어서 힘을 낼 수조차 없었다”(The overflowing misery I now felt, and the excess of agitation that I endure, rendered me incapable of any exertion, 201)라고 말하며 필연적인 비극에 고통 받는다.

물론 이렇게 참담한 심정을 부각시키고 독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감정적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는 비단 ‘비참함’(misery)처럼 부정적인 감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감정어휘들도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역할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되지만 그 효과는 부정적인 어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가령 <그림 2>에서처럼 전체 키워드 리스트 중 비참한 감정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형용사인 ‘자애로운’(benevolent)은 드 라세이 가족을 묘사하거나 엘리자베스가 빅터에게 유스틴을 소개할 때, 또 빅터의 어머니를 묘사할 때 등장한다. 이 어휘는 전체 14회 중 대부분이 ‘얼굴’(countenance), ‘미소’(smile), ‘성격’(disposition)같은 명사와 함께 쓰이는데 물론 이를 통해 내러티브의 특징을 추론할 수는 없다. 명사형인 ‘자애’(benevolence) 역시 전체 7회 중, 드 라세이 노인을 묘사할 때만 유일하게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엄청난, 대단한’(great)과 사용되어 이후 창조물이 그에게 자신을 친구로 받아주도록 호소할 여지를 남겨둘 서사적 장치로 활용되지만 이 역시 단 1회만 나타나기에 내러티브의 중요한 설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인 ‘행복’(happiness)도 전체 49회중 9회만이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고, 이때에도 감정과 관련 있거나 정도를 강조하는 어휘라고는 ‘희미한’(faint), ‘평화로운’(peaceful), ‘상대적인’(comparative), ‘약간’(little)에 불과하다. 용례를 보더라도 내러티브 초반 빅터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뒤 옛 친구인 클레발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즐거웠던 시절을 장황하게 설명할 때(1권 6장)나 끔찍한 기억을 뒤로 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감탄하며 희미한 행복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할 때(2권 2장)처럼 긍정적인 감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앞으로 닥칠 비극적인 사건을 더욱 부각시키는 장치로 사용될 뿐이다. 따라서 파국으로 치닫는 비극적인 플롯 때문에 주로 부정적인 감정어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nto the presence of the magistrate, an old benevolent man with calm and mild manners. (S) He looked at the virtues of the cottagers, their amiable and benevolent dispositions, I persuaded myself that when time should appear to me the most amiable and benevolent of human creatures. (S) She nursed Madame Frankenstein beautiful before. (S) The silver hair and benevolent countenance of the aged cottager won my reverence and excited pleasurable emotion in her soft and benevolent mind. (S) Her health, and even the tranquillity of her countenance gave me even more pain than the benevolent approbation of M. Waldman. (S) "Down the fellow, and my beloved country; again I saw the benevolent countenance of my father, heard the silver tones of his tender caresses and my father's smile of benevolent pleasure while regarding me are my first recollection of virtue. (S) I had begun life with benevolent intentions and thirsted for the moment when I should be on the shores of the Lake of Como. (S) Their benevolent disposition often made them enter the cottage with passion? (S) Believe me, Frankenstein, I was benevolent; my soul glowed with love and humanity; but I alone am irrevocably excluded. (S) I was benevolent and good; misery made me a fiend. (S) Make me happy; and not a care will ever cloud his benevolent countenance. (S) How pleased you would be to see his gentleness, and he rewarded them by his benevolent smiles. (S) "They were not entirely happy. (S)

### <그림 2> UNITEX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benevolent의 용례

이처럼 감정어휘들은 플랫폼에 따라서 예측 가능할 정도로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활용된다. ‘불쌍한’(poor)의 경우, 행복한 드 라세이 가족의 모습을 본 창조물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희생자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정도의 부사도 마찬가지로 ‘간절히’(ardently)는 ‘바라다, 희망하다’(desire, wish, hope, long)같은 동사와 함께 나타나고, <그림 3>에서처럼 ‘크게, 깊이’(deeply) 역시 ‘감명을 주다’(impress), ‘감정을 느끼다’(feel, affect), ‘흥미를 끌다’(interest), ‘고취하다’(imbue) 등 감정표현을 나타내는 어휘와 쓰여서 등장인물들의 감정적인 상태를 강조함을 알 수 있다. ‘불결한’(filthy)도 창조물을 창조하는 과정이나 그 흉측한 모습과 창조물 스스로를 지칭하는 “불결한 악마”(filthy daemon, 77)라고 묘사할 때 사용되는데, 이렇게 창조물이나 창조과정을 부정적으로 각인시켜 이후 그 창조물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건을 비극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랑켄슈타인』에서 감정어휘는 독자나 타인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서사적 장치로 가장 단순하지만 내러티브를 완벽하게 통제하여 감정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istory of my beloved cottagers. (S) It impressed me **deeply**. (S) I learned, from the views of social life which practised senses, he appeared to have suffered more **deeply** than his friends. (S) But if his countenance was the nearer I approached to your habitation, the more **deeply** did I feel the spirit of revenge enkindled in my ven broken in spirit as he is, no one can feel more **deeply** than he does the beauties of nature. (S) The star (S) "Other lessons were impressed upon me even more **deeply**. (S) I heard of the difference of sexes, and the capable of a more intense application and was more **deeply** smitten with the thirst for knowledge. (S) She but eared the detail to another would only impress more **deeply**. (S) M. Krempe was not equally docile; and in my led by his own misery but that he interests himself **deeply** in the projects of others. (S) He has frequently ) It was one which could not fail to impress itself **deeply** on my mind, unfolding as it did a number of circ "(S) "You have guessed right; I have lately been so **deeply** engaged in one occupation that I have not allowe s which before always yielded me supreme delight—so **deeply** was I engrossed in my occupation. (S) The leaves r loved Beaufort with the truest friendship and was **deeply** grieved by his retreat in these unfortunate circ rdsnip, and even danger for its own sake. (S) He was **deeply** read in books of chivalry and romance. (S) He coo as the house of mourning. (S) My father's health was **deeply** shaken by the horror of the recent events. (S) El (S) I saw no cause for their unhappiness, but I was **deeply** affected by it. (S) If such lovely creatures were hat instant my father entered. (S) I saw unhappiness **deeply** impressed on his countenance, but he endeavoure ish my despair. (S) Sometimes he thought that I felt **deeply** the degradation of being obliged to answer a cha f natural philosophy. (S) He was an uncouth man, but **deeply** imbued in the secrets of his science. (S) He aske lf. (S) These events have affected me, God knows how **deeply**; but I am not so wretched as you are. (S) There i n the aspirations and ambition of his son. (S) Henry **deeply** felt the misfortune of being debarred from a lib

### 〈그림 3〉 UNITEX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deeply**의 용례

## 3.2 시각적 인식을 강조한 감정표현 방식

언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주된 수단이지만 감정은 주체의 내적 경험에 의존한 주관적인 반응으로 언어뿐 아니라 신체적 반응이나 목소리, 자세, 행동 같은 비언어적인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는 감정은 감정어휘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문맥 안에서 유추하거나 발화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홍종선, 정연주 390-91). 그런데 『프랑켄슈타인』에서 감정어휘를 제외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키워드 분석이나 워드 리스트로는 특이점을 찾을 수 없다. 이는 내러티브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특별한 어휘를 활용한다기보다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인의 보편적인 반응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흥족한 창조물을 처음 목격한 노인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도망치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거나 기절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기도 한다(108-9). 이는 두렵거나 무서운 상대를 보고 인간이 하는 가장 일반적인 감정 표현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창조물은 눈을 뜨자마자 주변의 자극을 느끼고 “나는 추웠고, 이렇게 적막한 곳에 있으니 본능적으로 좀 무서웠다”(I felt cold also, and half frightened, as it were, instinctively, finding myself so desolate, 105)라고 감정을 표현한다. 이 또한 홀로 어둡고 추운 숲 속에 있다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다. 그는 드 라세이 가족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만

으로도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기도 한다(115-16). 따라서 『프랑켄슈타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단순히 논하기에 코퍼스 분석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프랑켄슈타인』 속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거나 감정을 자극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코퍼스 분석결과로 확인하면 주로 시각적 반응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각을 강조한 어휘를 활용한다거나 시각적 재현을 돕는 서술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언어를 제외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표정이나 몸짓, 소리도 있다. 에크만은 인간이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드러내는 감정신호를 보고 이를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감정을 느낀다고 지적한다(54-55). 그는 목소리도 중요한 감정의 표현 수단이지만 개인 의지에 따라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감정표현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본다(76). 따라서 표정을 읽는 시각적 인식 행위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창조물의 추함을 평가하는 시각적 판단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감정 교류도 이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코퍼스를 통해 주제와 연관시켜 확인할 특징은 감정을 표출하고 반응하며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각적 인식을 강조한 어휘의 활용법과 표현 방식이다.

앞서 살펴본 키워드 목록을 보면 최빈출어휘는 “spent,” “endured,” “destroyed,” “became,” “abhorred” 순으로 나열되는데, 이 동사들로 내러티브에서 주제와 관련되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키워드목록이 아니라 유니텍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워드 리스트를 추출하고 조동사를 제외한 최빈출어휘를 살펴보면 “said”(104회)를 제외하고 “saw”(94회, 0.057%)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빈출어휘에서 오감에 기반한 동사, 즉 “보다,” “듣다,” “냄새 맡다,” “맛 보다,” “느끼다”의 의미를 지닌 지각동사 중 시각적 의미를 지닌 어휘가 압도적이다. 다시 말해 ‘듣다’란 “listen”이나 “hear”의 경우 굴절변이형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 95회 등장하는 반면, “see,” “look,” “behold,” “observe,” “watch,” “gaze” 같은 ‘보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는 373회 등장한다. 그리고 이는 내러티브에서 시각적인 인식에 대한 의미를 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특징이 된다.<sup>10)</sup>

『프랑켄슈타인』은 시각적인 인지행위가 중시되는 내러티브라 할 수 있다. 창조물을 포함한 모든 인물들은 먼저 상대나 상황을 주시하고 그 의미를 가늠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직시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지작용은 시각보다 우선시되지 않으며 첫인상만으로도 상대를 판단하고 존재의미를 부여한다. 이에 신경숙은 내러티브의 핵심에 보는 행위가 자리 잡고 있으며 창조물이 타인과의 공감 반응 시 시각적 감응이 존재하고, 추함을 분별하는 시각적 편견으로 그들과의 교감이 불가능함을 지적한다(208-10). 신혜원도 시각적 인식에 기반을 둔 공감의 한계를 언급하며 월튼을 빅터와 대조되는 도덕적 구심점으로 보고 빅터가 시각 중심적이고 가족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다면 월튼의 연민은 인간이 아닌 대상까지도 감정의 영역이 확장되어 있음을 말한다(106-7). 이처럼 내러티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시각 또는 시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보는 행위는 단순히 시각적 인지에서 그치지 않고 이차적 반응, 즉 직시대상에 대한 감정이입을 동반하기도 한다.

(8) 내 관심은 인간의 여린 감정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모든 대상에 쏠렸다. 나는 어떻게 인간의 훌륭한 육신이 분해되고 없어지는지 보았다. 죽음의 부패가 생명이 피어나던 뺨에 다다르는 것도 지켜보았다. 어떻게 벌레가 눈과 뇌의 경이로움을 이어받는지도 바라보았다.

My attention was fixed upon every object the most insupportable to the delicacy of the human feelings. I saw how the fine form of man was degraded and wasted; I beheld the corruption of death succeed to the blooming cheek of life; I saw how the worm inherited the wonders of the eye and brain. (53)

(9) 그는 내 감정 변화를 보고서는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동의하면, 당신이 나 다른 인간이 우리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겠어. . . . 그토록 내게 무자비하던 당신이지만 이제 그 눈에 연민이 보이는군.”

He saw my change of feeling and continued, "If you consent, neither you nor any other human being shall ever see us again; . . . Pitiless as you have been towards me, I now see compassion in your eyes." (148-49)

예문 (8)에서처럼 빅터가 자연의 신비로운 법칙을 공부하고 그 대단한 힘을 발견할 때는 대상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인지행위가 수반되어 연구의 핵심 지식을 획득하게 되지만, (9)에서처럼 창조물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어울리는 짝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장면에서는 단순한 인지작용이 아닌 직시대상의 마음을 헤아려 미묘한 감정의 변화까지도 간파할 수 있게 된다.

(10) 그는 목소리를 조절하고 고귀한 의도와 용감한 눈빛으로 갖가지 감정을 표현하며 선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지요.

He spoke this with a voice so modulated to the different feelings expressed in his speech, with an eye so full of lofty design and heroism, that can you wonder that these men were moved? They looked at one another and were unable to reply. (218)

(11) 그는 멈춰서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 다시 생명을 잃은 창조자를 향해 돌아섰는데, 마치 제 존재를 잊은 것처럼 얼굴표정과 몸짓이 통제할 수 없는 격노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 . . 그의 목소리는 북받친 듯했고, 원수를 처치해달라는 죽어가는 친구의 요청을 따르려던 의무감은 호기심과 연민으로 유보되었습니다.

He paused, looking on me with wonder, and again turning towards the lifeless form of his creator, he seemed to forget my presence, and every feature and gesture seemed instigated by the wildest rage of some uncontrollable passion. . . . His voice seemed suffocated, and my first impulses, which had suggested to me the duty of obeying the dying request

of my friend in destroying his enemy, were now suspended by a mixture of curiosity and compassion. (221)

(10), (11)에서 월튼은 자신의 결정에 반발하는 선원들을 설득하는 빅터의 호소를 들으며 발화자의 심경뿐 아니라 청자의 감정변화를 인지한다. 또 직접 창조물을 직접 목격한 직후에도 상대에 대한 감정이입이 반사적으로 뒤따른다.

그런데 이런 시각적 행위의 인지와 공감반응은 코퍼스 분석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정량적 분석의 한계로 단정 지을 수도 있지만, “보다”는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닌 이차적 행위, 즉 신체적 행위를 넘어서 정신적 인지활동을 동반함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때의 정신적 인지활동은 감정반응도 포함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는 감정어휘같은 언어를 직접 이용하거나 ‘낮뜨겁다’처럼 환유적인 표현으로도 가능하고, 억양과 강약뿐 아니라 발화맥락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홍종선, 정연주 391). 게다가 『프랑켄슈타인』에서는 시각적 행위의 동사가 최다빈출어휘이며 이 시각동사가 감정의 표현에 활용되는 방식은 먼저 보되, 이를 바로 판단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역사시지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공감과정과 일치한다. 그는 “우리는 상상으로 우리 자신을 타인의 상황에 두고, 우리 스스로가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간주한다. 우리는 그의 몸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그의 감정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비록 정도는 약할지라도 그 감정과 똑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By the imagination we place ourselves in his situation, we conceive ourselves enduring all the same torments, we enter as it were into his body, and become in some measure the same person with him, and thence form some idea of his sensations, and even feel something which though weaker in degree, is not altogether unlike them, 12)고 공감의 단계를 정의한다. 그리고 바로 이 같은 과정을 답습하듯 『프랑켄슈타인』에서 공감의 과정은 시각적 행위와 함께 상상력이 작용, 직시대상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과정이 재현된다.

두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청각과 관련된 동사 역시 화자와 청자사이의 감정이입을

동반한다. 창조물은 드 라세이 가족에게서 인간의 감정뿐 아니라 사회적인 감정교육을 받지만 상호적이지 않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의 추한 외모도 타인의 혐오감만 야기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시각이 아닌 청각에 호소한다. 이에 브리튼(Jeanne M. Britton)은 프랑켄슈타인에서 공감미 시각이 아닌 청각으로 이루어지고, 청각과 문자적 어휘 즉 텍스트의 생산으로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본다(22). 그러므로 이처럼 시각적 행위나 인식이 거부당하거나 불가능할 때의 대안인 청각적 행위도 역시 이면에는 실체 없는 대상이나 감정을 눈앞에 형상화시키도록 상상력이 발휘된다.

이때의 상상력은 감정이입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특정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들은 뒤, 그 상황을 본인의 입장에 대입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공유 시 상상력의 서술적 표현은 코퍼스 분석결과로도 알 수 있는데, 텍스트에서 총 33회(0.06%) 등장하는 “as if” 때문이다. 이는 내러티브에서 각 인물이 표현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활용된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치 ~인 것처럼’(as if) 구문은 주로 ‘감정이 들다’(feel)와 ‘~인 것 같다’(seem)와 같은 동사와 쓰인다. 비록 코퍼스 분석 결과에서 ‘감정이 들다’(feel)의 굴절변이형(feel, feels, felt, feeling, feelings)을 한 단어로 간주해도 0.32%에 지나지 않지만 유니텍스나 워드스미스의 코퍼스 분석결과에서 이 ‘감정을 느끼다’라는 동사의 출현빈도가 시각적 행위를 강조한 동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고 용례에 있어서 ‘마치 ~인 것처럼’(as if, like)이 특정 상황을 구체화시켜서 보편적이고 유사한 경험을 시각적으로 가시화시켜 개인적인 차원으로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목해야 한다.<sup>11)</sup>

me to pursue my accustomed studies. (S) It seemed to me as if nothing would or could ever be known. (S) All the  
 prosperity or ruin. (S) When I look back, it seems to me as if this almost miraculous change of inclination and  
 she had nursed from its birth, and appeared to love as if it had been her own! (S) I could not consent to  
 rk how very ill you appear; so thin and pale; you look as if you had been watching for several nights. (S) “  
 can assure themselves of certain happiness?” I feel as if I were walking on the edge of a precipice, towa-  
 S) It removes more than half my misfortune, and I feel as if I could die in peace now that my innocence is a-  
 of what had happened; my eyes wandered round the room as if to seek something that (S) I had lost. (S) After  
 at threat as binding him to peace in the meantime, for as if to show me that he was not yet satiated with bli-  
 a leaf startled me, and I shunned my fellow creatures as if I had been guilty of a crime. (S) Sometimes I gra-  
 ssion. (S) He endeavours to fill me with hope and talks as if life were a possession which he valued. (S) He re-  
 sations, who can describe those of Henry? (S) He felt as if he had been transported to Fairy-land and enjoy  
 (S) He meant to please, and he tormented me. (S) I felt as if he had placed carefully, one by one, in my view  
 answered no question, scarcely did I speak. (S) I felt as if I were placed under a ban—as if I had no right  
 g towards land, but I sailed away from them. (S) I felt as if I was about the commission of a dreadful crime  
 him from the fancied rage of his destroyer. (S) I felt as if I had committed some great crime, the conscious-  
 ng and heavily; the mountains re-echoed it, and I felt as if all hell surrounded me with mockery and laughte-  
 s fate—enounced to destroy me. (S) As he went on I felt as if my soul were grappling with a palpable enemy; on  
 now sank refreshed me; and when I awoke, I again felt as if I belonged to a race of human beings like myself:  
 stroyed, lay scattered on the floor, and I almost felt as if I had mangled the living flesh of a human being  
 stever consequences, must be fulfilled; but I now felt as if a film had been taken from before my eyes and t  
 ten the particulars of what had happened and only felt as if some great misfortune had suddenly overwhelmed  
 did I speak. (S) I felt as if I were placed under a ban—as if I had no right to claim their sympathy. (S) (프랑켄슈타인)

#### 〈그림 4〉 UNITEX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as if의 용례

tuations, as their similarity struck me, to my own. (S) Like Adam, I was apparently united by no link to any of  
 with irregular steps, not daring to look about me: (S) Like one who, on a lonely road, (S) Doth walk in fear an  
 or several hours, this sudden certainty of life rushed like a flood of warm joy to my heart, and tears gush  
 iend rang in my ears like a death-knell; they appeared like a dream, yet distinct and oppressive as a reality.  
 g could remove. (S) Sleep fled from my eyes; I wandered like an evil spirit, for I had committed deeds of misch  
 , the presence of the magistrate and witnesses, passed like a dream from my memory when I saw the lifeless for  
 has indeed taken refuge in the Alps, he may be hunted like the chamois and destroyed as a beast of prey. (S) B  
 ated in a chair, my eyes half open and my cheeks livid like those in death. (S) I was overcome by gloom and mis  
 and be triumphant, my rage and vengeance returned, and like a mighty tide, overwhelmed every other feeling. (S)  
 . (S) All my speculations and hopes are as nothing, and like the archangel who aspired to omnipotence, I am cha  
 snts, yet when he has retired into himself, he will be like a celestial spirit that has a halo around him, wit  
 parture still is free. (S) Man's yesterday may ne'er be like his morrow: (S) Nought may endure but mutability! (S  
 whom I had myself created. (S) I walked about the isle like a restless spectre, separated from all it loved an  
 every other circumstance of existence pass before me like a dream, and that thought only had to me the reali  
 exertion. (S) But the appearance of my father was to me like that of my good angel, and I gradually recovered m  
 als necessary for my new creation, and this was to me like the torture of single drops of water continually f  
 tterly, when my father entered the chamber. (S) He came like a protecting spirit to the poor girl, who committe  
 of our species. (S) The saintly soul of Elizabeth shone like a shrine-dedicated lamp in our peaceful home. (S) H  
 heirs. (S) When I looked around I saw and heard of none like me. (S) Was I, then, a monster, a blot upon the ear  
 vated as well as of a capacious mind, whose tastes are like my own, to approve or amend my plans. (S) How would  
 cm the house, but my head whirled round, my steps were like those of a drunken man, I fell at last in a state

#### 〈그림 5〉 UNITEX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like의 용례

윌튼은 창조물을 추적하던 빅터를 만나고 그가 체력을 회복한 뒤 담소를 나눌 때  
 “그는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보였는데, 마치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를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이를 갈기도 했다”(He is generally melancholy and despairing, and  
 sometimes he gnashes his teeth, as if impatient of the weight of woes that oppresses  
 him, 33)고 말하며 상대의 비참한 심경을 구체화시켜 전달한다. 이 모든 비극을 초래  
 한 빅터도 가족과 연락을 단절한 채 창조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나는 죄를 저지  
 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피했다”(I shunned my fellow creatures as if I had been  
 guilty of a crime, 57)라며 간접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또한 그는 창조물  
 의 마지막 요청으로 만들고 있었던 여성창조물을 직접 없애면서 “마치 살아있는 인간

의 살점을 난도질한 것 같았다”(I almost felt as if I had mangled the living flesh of a human being. I paused to collect myself and then entered the chamber, 175)고 고백하거나 잔해를 바다에 던지면서 “마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것처럼”(as if I was about the commission of a dreadful crime, 175) 느껴졌다며 모든 비극의 단초가 된 자신의 실험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오만이 불러온 비극에 대해 정확히 직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비유적이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화시켜서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 대신 감정적 호응을 유도한다.

물론 해치가 『프랑켄슈타인』에서 수치심이나 역겨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반사적으로 시선을 피하는 행동이 자아와 타인의 시각적 교감을 방해하고 공감과 정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창조물의 추한 외모에 제한된다. 반면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처지에 공감하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그림 5>의 용례에서처럼 ‘~처럼’(like)도 활용해서 여성창조물을 없애고 난 뒤 “나는 사랑하는 모든 것과 떨어져 이에 비참해진 불안한 유령처럼 섬 주변을 거닐었다”(I walked about the isle like a restless spectre, separated from all it loved, and miserable in the separation, 174)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서 독자를 포함한 청자가 쉽게 상상하고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코퍼스의 빈출어휘와 키워드 분석으로 보면 『프랑켄슈타인』에서는 내러티브를 관통하는 감정의 표현이 어휘적 특징뿐 아니라 시각적 반응을 강조한 동사들로도 구현된다.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어휘는 서사적으로는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고 부각시키지만 등장인물의 역할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그에 반응하는 독자의 감정반응을 예측하고 의도적으로 통제한다. 또한 시각적 반응과 인식을 강조하는 어휘를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경험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이는 코퍼스 분석으로 유의미한 어휘를 추출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4. 결론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 피조물이 어휘를 습득하는 과정을 보면 동물의 감정을 분석하는 다윈의 글과 유사하다. 즉 그는 감정이 특정한 소리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고, 소리를 통해서 언어를 배운다. 창조물은 태어나자마자 감정을 느끼고 사물의 형상을 보자마자 인지하고 반응한다. 그에게 사회성은 필요치 않고 가장 기초적인 감각에 의존해 생존기술을 습득하며, 감정 교육이나 공감의 과정은 간과된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추한 외모를 인식한 순간 그는 타인의 반응을 민감하게 의식하며 분노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시각기능에 의존해서 살아가던 그가 바로 그 시각기능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되고 거부당하면서 모든 내러티브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퍼스 언어학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어휘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고유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의 경우 정량적 분석보다는 정성적 분석이 필수적이기에 코퍼스에 기반한 키워드 분석만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데는 불충분하지만, 『프랑켄슈타인』처럼 다양한 감정어휘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주제와 관련되는 작품에는 접목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키워드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러티브에서 반복되는 ‘비참한’같은 감정어휘들이 플롯에 따라 비극적인 인물과 상황에 규칙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등장인물들뿐 아니라 독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작가가 의도한 감정어휘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각동사 중, 시각적 기능과 청각적 기능에 의존하는 동사들이 두드러지게 활용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상상력조차도 ‘마치 ~인 것처럼’(as if, like)같은 어휘를 통해 추상적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도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창조물이 타인의 신체를 조합한 결과물로 제각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나 융합되었을 때 비록 흉측한 몸골이지만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생명을 얻고 자립하는 것처럼, 코퍼스에서 추출할 수 있는 워드 리스트 및 키워드 리스트 같은 정량적 결과는 그 자체만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지만 내러티브의 용례를 통해서 이를 분석하고 통합시킬 때 텍스트의 주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Notes

- 1) 호글(Jerrold E. Hogle)은 고딕소설이 배경이나 중심소재가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극히 평범한 현실세상의 세속적인 법칙과 초자연적인 가능성들의 사이를 오가며 그 경계를 따르거나 허물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이나 독자들에게 불안한 긴장감을 조성한다거나 심리적이거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폭력에 직면하도록 해서 일상생활의 억압이나 규범을 다소 충격적이고 무시무시한 결과로 파괴하기도 한다고 말한다(2-3). 보팅(Fred Botting)도 프랑스 혁명 기간 유행하던 고딕소설이 정치적인 담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나 치리만큼 과잉의 감정표현이 전복적인 효과를 유발하며, 도덕적 사회적 인식적 규범을 벗어나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허물고 그 한계를 벗어난다고 말한다(5).
- 2) 김미숙은 내러티브에서 재현되는 지배적인 감정인 공포에 주목하고 상상력을 통해 승고를 야기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버크(Edmund Burke)의 의견에 동의하며, 주체의 경험인 승고함이 다양한 대상으로 인해 야기되지만 결국 승고함을 일으키는 대상에 대한 태도는 주체의 인식의 변화로 인해 바뀐다고 지적한다(162). 그는 내러티브에서 공포나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승고와 비례하지만 결국 그 감정이 인지반응이자 주체적인 사고과정을 거치며 주체의 심리상태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본다(178). 이는 승고로 대변되는 감정의 인지작용이 결국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시간에도 추함에 대한 버크와 칸트의 미학적 개념이 창조물의 흥축한 외모로 강조되고 아름다운 부분이 지나치게 과잉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괴물의 추함은 미적으로 실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570). 그렇기에 그는 존재를 거부당하고 끊임없이 억압받으며 결국 파멸될 수밖에 없다.
- 3) 다윈은 감정표현이 천성적인 것이라고 보며 인간뿐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 사는 사회적 동물은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대개 소리를 통해 이루어지며 몸짓과 표정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인간이 동물과 달리 울음, 몸짓, 표정뿐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중요한 특징을 지녔음을 지적한다(60).
- 4) 감정에 따른 신체적 특징은 찰스 다윈을 비롯해 에크만(Paul Ekman), 오토니(Andrew Ortony) 등 많은 심리학자의 논의대상이었다. 다윈은 신경계의 흥분이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의지와 무관하지만 점차 다양한 움직임에 포괄적으로 반응한다고 말한다(81). 그는 동물의 표정이나 발생에서 특정한 감정이 나타나고 얼굴근육이나 신체적 특징이 달라짐을 분석했다. 에크만 역시 감정에 따른 생리적 반응이 다르며, 기억이나 회상을 통해 감정을 느낄 때에도 생리적인 반응이나 표정도 달라진다고 말한다(32-33).
- 5) 언어의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빈도수와 중요성은 서로 비례한다. 즉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텍스트 내용이나 구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키워드는 주제나 소재와도 관련이 있기에 정량적인 어휘 분석 시 키워드의 빈도수 역시 주목할 만하다 (Fisher-Starcke 494-95; Sinclair 31).

- 6) 존스는 참조코퍼스로 활용한 영국국가코퍼스(British National Corpus, 이하 BNC)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고딕소설의 장르적 특징을 각 용례를 통해 분석한다. 그는 고딕소설이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어휘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대명사의 활용과 호격, 감정어휘의 빈도, 그리고 신체부분을 나타내는 어휘의 강조로 나타나며, 특히 신체부위 중 ‘눈’(eye)은 가장 높은 빈출어휘로 사물을 본다는 기능적인 의미뿐 아니라 상황을 인지하거나 심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각성의 의미와도 연관됨을 다양한 용례를 통해 말하고 있다.
- 7) 이때 활용하는 참조코퍼스는 키워드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일반적인 언어의 활용을 알 수 있는 데이터로 분석하는 대상인 타깃 코퍼스의 문체적 특징을 찾아내고 키워드를 추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를 할 참조코퍼스는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분석할 텍스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르일수록 유리하다(하명정 443; Biber 17).
- 8)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에서는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 9) “Wretch”의 경우, ‘불쌍한 놈, 비열한 놈’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주로 창조물이나 빅터를 지칭하는 명사의 의미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감정어휘로 분류하지 않았다.
- 10) 다른 지각동사의 경우, 언급한 ‘듣다’ 이외에 touch는 8회, taste는 7회, 그리고 smell은 2회 등장한다. 이는 굴절변이형을 모두 포함한 횡수이다. 따라서 시각과 관련된 어휘는 수치로는 0.21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다른 지각동사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코퍼스를 활용한 문학 분석의 한계, 즉 단순히 정량적인 수치로 텍스트 상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자주 나타나는 어휘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지만 빈도수와 중요도가 비례하지 않는데, 가령 조동사나 관사의 빈도로 내러티브의 의미를 유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빈도수를 내러티브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용분석이 필수적이고, 빈출어휘를 이와 접목시키면 내러티브의 주제를 비롯한 고유한 특징이 나타난다.
- 11) “As if”구문이 지닌 시각적 기능에 대해서 패리나(Jonathan Farina)는 디킨즈 작품을 예로 들며 빈번하게 등장하는 “as if”가 등장인물들이 추상적인 감정과 주관성, 이데올로기, 사회적 체계 같은 것을 구체적인 현실처럼 다룰 수 있는 접착제라고 말한다(430). 즉 시각화를 통해서 다양한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경우들을 수월하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인 용 문 헌

- 김미숙.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공포와 숭고」. 『세계문학비교연구』 45 (2013): 159-84.
- 신경숙. 「공감, 보기, 그리고 감정노동 - 『프랑켄슈타인』의 아담 스미스 다시 읽기」. 『영어영문학』 58.2 (2012): 189-215.
- 홍종선, 정연주. 「감정동사의 범주규정과 유형분류」. 『한국어학』 45 (2009): 387-420.
- 하명정. 「코퍼스에 기반한 문학텍스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013): 440-47.
- Biber, Douglas. “Corpus Linguistics and the Study of Literature: Back to the Future?” *Scientific Study of Literature* 1.1 (2011): 15-23. Print.
- Britton, Jeanne M. “Novelistic Sympathy in Mary Shelley’s *Frankenstein*.” *Studies in Romanticism* 48 (2009): 3-22. Print.
- Botting, Fred. *Gothic*. 2nd ed. London: Routledge, 2014. Print.
- Darwin, Charles.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3rd ed. Oxford: Oxford UP, 1998. Print.
- Ekman, Paul. *Emotion Revealed: Recognizing Faces and Feelings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Emotional Life*. 2nd ed. New York: Henry Holt, 2007. Print.
- Enkvist, N. E., M. Gregory, and J. Spencer, *Linguistics and Style on Defining Style: An Essay in Applied Linguistics*. Oxford: Oxford UP, 1964. Print.
- Farina, Jonathan. “Dickens’s As If: Analogy and Victorian Virtual Reality.” *Victorian Studies* 53.3 (2011): 427-36. Print.
- Fisher-Starcke, Bettina. “Keywords and Frequent Phrases of Jane Austen’s *Pride and Prejudice*: A Corpus-Stylistic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 Linguistics* 14.4 (2009): 492-523. Print.
- Gigante, Denise. "Facing the Ugly: The Case of *Frankenstein*." *ELH* 67.2 (2000): 565-87. Print.
- Hatch, James C. "Disruptive Affects: Shame, Disgust, and Sympathy in *Frankenstein*." *European Romantic Review* 19.1 (2008): 33-49. Print.
- Hogle, Jerrold E. "Introduction: The Gothic in Western Culture." *The Cambridge Companion to Gothic Novel*. Ed. Jerrold E. Hogle. Cambridge: Cambridge UP, 2002. 1-20. Print.
- Jones, Stephanie. "Exploring Gothic Fiction: A Corpus-Based Analysis." Diss. U of Edinburgh, 2010. Print.
- Juengel, Scott J. "Face, Figure, Physiognomics: Mary Shelley's *Frankenstein* and the Moving Image." *Novel: A Forum on Fiction* 33.3 (2000): 353-76. Print.
- Lee, Haemoon. "Crossing the Boundary between Linguistics and Literature and its Applicati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8.4 (2002): 803-26. Print.
- Plutchik, Robert and Henry Kellerman.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Print.
- Prinz, Jesse J. "The Moral Emotions."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of Emotion*. Ed. Peter Goldie. Oxford: Oxford UP, 2013. 519-38. Print.
- Segundo, Pablo Ruano San. "A Corpus-Stylistic Approach to Dickens' Use of Speech Verbs: Beyond Mere Reporting." *Language and Literature* 25.2 (2016): 113-29. Print.
- Shelly, Mary. *Frankenstein*. Ed. Maurice Hindle. New York: Penguin Books, 2003. Print.
- Shin, Hyewon. "Mary Shelly's Criticism of Anthropomorphic Comparison in *Frankenstein*." *British and American Fiction* 23.2 (2016): 105-23. Print.
- Sinclair, John. *Corpus, Concordance, and Collocation*. Oxford: Oxford UP, 1991.

Print.

Smith, Adam.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Ed. Knud Haakonssen. Cambridge: Cambridge UP, 2009. Print.

Stubbs, Michael. "Conrad in the Computer: Examples of Quantitative Stylistic Methods." *Languages and Literature* 14.1 (2005): 5-24. Print.

## Abstract

### A Corpus-Based Study of Emotional Vocabulary and Expression in *Frankenstein*

Soon-gang Park (Korea Polytechnic I College)

Corpus linguistic analyses are the techniques, which help demonstrate the linguistic features of various data. Recently corpus linguistic analyses have been used to stud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literary texts as well as non-literary texts. The keyword, considered as the style marker, is the crucial factor to analyze the literary meanings and structural features of the text. This paper illustrates that Mary Shelly tries to control the empathic responses of the characters and readers with specific emotional vocabulary and expressions in *Frankenstein*. That is, negative emotional words are used to highlight the tragic situations of the characters and elicit universal emotional responses to the specific situations without exception. That is why the readers can easily empathize with the characters in the narrative. Also using the adverbs of degree and verbs of perception, Shelly boosts the negative and tragic sentiments of the characters, and shows the importance of the visual signification in terms of evaluating the others' feelings. The process of empathy with the concrete imagination is identified by the concordance as well. Most of all, the corpus linguistics can be used as an objective method of interpretation in literary texts.

**Key Words:** Corpus-based analysis, emotional vocabulary and expression, visual signification, empathy, imagination

논문접수일: 2019.05.16

심사완료일: 2019.06.06

게재확정일: 2019.06.14

이름: 박순강 (강사)

소속: 한국폴리텍I대학

이메일: michellesg@naver.com